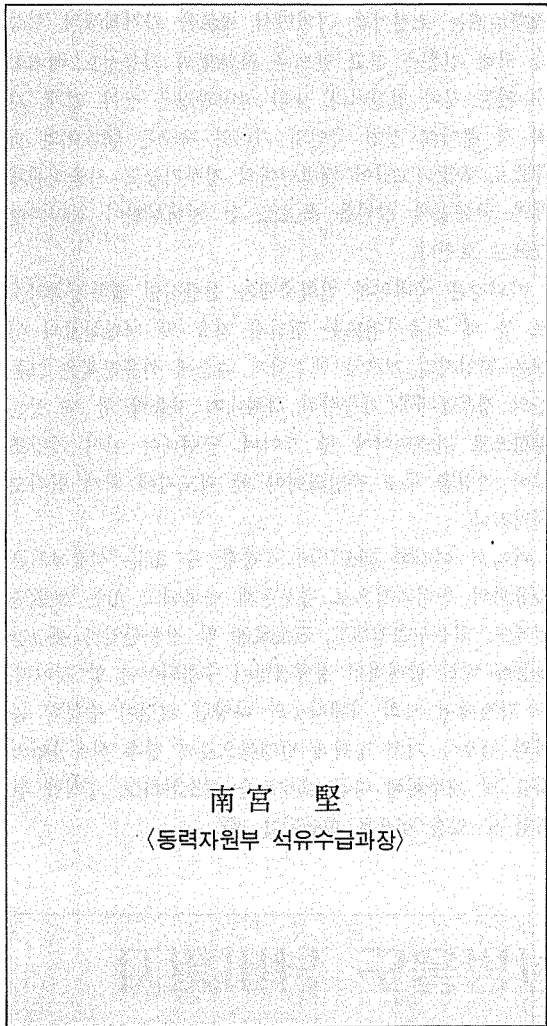


I. 머리말

1979년 제2차 석유위기 이후 경제성장율의 둔화와 脫石油정책의 추진 및 에너지 소비절약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石油수요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연평균 0.8%의 낮은 증가를 보였는 바, 이는 주로 산업연료의 유연탄대체 및 발전연료의 脫石油化에 따른 B-C油 수요의

88년도 석유수급계획



南宮 堅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과장)

감퇴에 기인한 바가 컸다. 그러나 1986년부터는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두드러졌고, 차량증대와 산업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송용수요의 증대 및 原油價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의 인하와 난방면적의 증대등으로 인한 가정·산업용 수요증가, 발전용 B-C油 비중의 상대적 감퇴와 산업용 유연탄 대체의 한계등으로 石油수요는 1986년과 1987년의 경우 각각 6.0%와 4.9%의 증가추세를 보여 내수수요만으로도 2억배럴선을 넘어서게 되었다.(표-1 참조)

1988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내수수요는 1987년보다 9.0% 증가한 229,403천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8.0%의 경제성장율과 3,45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달성 그리고 현수준의 低油價 지속을 전제로 추정한 소비전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계속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유류소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하에서 1987년중의 석유제품 수급실적을 살펴보고 1988년도의 수급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

II. 1987년도 석유제품 수급실적

1. 수요측면

지난 1987년도의 석유제품수요는 경제성장율 8%, 제조업성장율 10%를 전제로 1986년도 보다 1.7% 증가한 202,579천배럴로 전망하였으나, 경제성장율 12% 제조업 성장율 16.4%의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 및 수송과 가정·산업용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발전용 수요의

〈表-1〉 연도별 석유제품 수요추이

(단위 : 천배럴)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 수요	180,055	178,894	189,308	191,049	189,191	200,591	210,515
전년대비(%)	▲1.1	▲0.6	5.8	0.9	▲1.0	6.0	4.9
B-C油	90,890	88,258	87,035	77,516	68,991	64,795	59,637
전년대비(%)	▲1.6	▲2.9	▲1.4	▲10.9	▲11.1	▲6.1	8.0
B-C油 제외	89,165	90,636	102,273	113,533	120,200	135,796	150,878
전년대비(%)	1.3	1.6	12.8	11.0	5.9	13.0	11.1
輕質油비중(%)	46.5	47.9	51.5	56.6	60.5	64.7	68.6
石油의존도(%)	58.1	57.6	55.9	51.8	48.5	46.7	44.3

註 : 국제 벙커링 제외

62.7%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3.9%가 증가한 210,515천배럴에 이룸으로써 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소비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와 2/4분기는 각각 9.6%와 5.5%의 강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3/4분기에는 6·29선언이후 각 산업체에서 계속된 노사분규에 의해 조업율이 떨어진데 기인하여 1987년 보다 오히려 0.3% 감소하였으며, 노사분규가 진정된 4/4분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石油수요가 산업가동율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표-2 참조).

〈表-2〉 1987년도 분기별 소비실적

(단위 : 천배럴)

	1/4	2/4	3/4	4/4
1986년도	49,292	47,806	47,876	55,617
전년대비(%)	2.3	9.0	7.1	6.1
1987년도	54,027	50,420	47,721	58,347
전년대비(%)	9.6	5.5	▲0.3	4.9

어를 유종별로 살펴보면, 주로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는 소득증대에 따른 승용차증가율의 가속화(27.7% 증가)와 유사휘발유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2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輕油도 차량증가와 산업출하증가(16.7%)에 따라 수송용이 15.3% 증가하고 산업 및 가정·상업용도 각각 7.1%와 11.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燈油는 가정연료의 고급화추세로 인한 LPG 공급확대에 따라 가정·상업용이 2.5% 감소하였으나, 산업과 공공기타 부분의 증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2.2% 증가하였으며, 프로판과 부탄은 가정용 수요확대 및 영업용 차량증대(6.2%)에 따라 각각 28.9%와 11.1%의 높은 증가추세를 계속하고 있다.

B-C油의 경우 1981년도에는 52.8%에 달하던 발전용 수요의 비중이 지속적인 발전연료 대체로 인하여 1986년의 경우 30.5%로 낮아졌으며, 1987년의 경우 발전용수요는 다시 64.2%가 감소하여 수요비중은 11.9%로 떨어졌다. 그러나 수출호조에 힘입어 해운용이 88.4% 증가하고 석탄가격과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라 가정용수요는 11.0% 증가하였으며, 산업용 수요도 8.9%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8.0% 감소에 그쳤다(표-3 참조).

1987년도 석유제품수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유, B-C油 및 나프타가 수요의 대종을 이루는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생산증가(16.7%) 및 수출호조(32.6%)에 힘입어 7.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송부문도 차량증가 및 물동량 증가에 따라 휘발유, 경유, 부탄등 전용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1.5% 증가의 강세를 보였다.

한편 가정·상업부문도 燈油가 2.5% 감소하였으나, 가격인하등의 영향으로 경유와 B-C油가 각각 11.0% 증가하고, 프로판이 3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5.7% 증가하였으며, 발전부문은 석유발전비중이 1986년도의 21.5%에서 6.9%로 떨어짐에 따라 石油소비량도 62.7% 감소하였다(표-4 참조).

〈表-3〉 유종별 소비실적

(단위 : 천배럴)

		1986	전년대비(%)	1987	전년대비(%)
에너지油	휘발유	8,557	23.6	10,354	21.0
	등유	7,985	0.7	8,158	2.2
	경유	57,137	9.5	63,459	11.1
	B - A 油	2,009	8.9	2,386	18.8
	B - B 油	1,093	8.5	1,278	17.0
	B - C 油	64,796	▲6.1	59,636	▲8.0
	Jet A - 1	3,749	15.2	4,167	11.1
	J P 4	4,674	39.5	4,917	5.2
	프로판	9,415	39.0	12,139	28.9
	부탄	8,170	9.3	9,076	11.1
小計		167,585	4.9	175,570	4.8
非에너지油	나프타	29,671	13.4	31,613	6.5
	용제	425	▲1.9	498	17.1
	아스팔트	2,910	1.8	2,834	▲2.6
	小計	33,006	12.1	34,945	5.9
합계		200,591	6.0	210,515	4.9

〈表-4〉 부문별 소비실적

(단위 : 천배럴)

	1986	전년대비(%)	1987	전년대비(%)
産業	83,879	11.4	89,796	7.1
수송	54,600	14.5	66,362	21.5
가정·상업	28,040	8.6	32,432	15.7
공공·기타	13,735	15.0	14,348	4.5
發電	20,388	▲28.5	7,578	▲62.7
計	200,591	6.0	210,515	4.9

국내 석유제품수요의 증가외에도 수출용 및 병커링용에 대한 관세 및 기금환급등 제도적 지원에 따라 수출 및 국제병커링도 각각 18.7% 및 37.6% 증대하여 1987년 중 총 석유제품 수요는 253,397천배럴에 달하였다.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87년중 총 216,166천배럴의 原油를 도입하여 210,964천배럴의 原油를 처리함으로써 208,020천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하였고, 정유사의 평균가동율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73.2%에 이르렀다.

한편 수요경질화 및 저유황유공급확대에 따라 국내생산이 부족한 경유, 저유황, B-C油 및 나프타, 프로판등을 주요 대상품목으로하여 총 47,880천배럴의 제품을

2. 공급측면

〈表-5〉 석유제품 수급실적

(단위 : 천배럴)

	공 급			수 요			
	생 산	수 입	計	내 수	국제병커링	수 출	計
1986	206,749	31,543	238,292	200,591	7,652	27,261	235,504
전년대비(%)	4.7	28.1	7.3	6.0	68.0	0.6	6.6
1987	208,020	47,880	255,900	210,515	10,529	32,353	253,397
전년대비(%)	0.6	51.8	7.4	4.9	37.6	18.7	7.6

수입함으로써 1987년중 총공급은 255,900천배럴로 수급 상 문제점이 없었다(표-5 참조).

Ⅲ. 88년도 석유제품 수급계획

1. 수요전망

(1) 개요

88년도의 국내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9.0% 증가된 229,408천배럴(627천B/D)에 달할 것이며, 이중 에너지油는 휘발유, 경유, LPG등의 높은 증가율로 전년대비 9.7%나 증가된 192,662천배럴이 되고, 非에너지油는 나프타수요 증가분화로 전년대비 5.2% 증가된 36,746천배럴이 될 전망이다.

또한, 83년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왔던 제품수요 구조의 輕質化 추세는 88년도에는 크게 둔화되어 총 유류수요중 輕質油 비중은 69.0%로 전년대비 불과 0.4% 포인트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계속되어온 발전용 B-C油의 수요격감 추세가 오히려 증가로 반전되고 나프타, JP-4등이 수요증가 둔화 또는 감소하는데에 기인한다.

한편, 국내총에너지 수요의 石油의존도는 그간 정부의 강력한 脫石油 전원개발계획 및 산업부문 유연탄대체 추진과 LNG 보급등으로 매년 현저히 감소해오고 있었으나, 88년도엔 전년도와 비슷한 44~45% 수준이 될 전망이며, 향후에도 당분간은 수송용 유류급증, 低油價 지속으로 인한 타연료 代替지연, 가정연료의 고급화 등으로 石油의존도는 별 감소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유종별 수요전망

88년도 석유제품 수요전망을 유종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및 輕油의 경우 소득증대에 따른 승용차 대수급증과 경제 고 성장 지속으로 인한 수송물량 증가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20.8% 및 10.0%의 높은 증가율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휘발유는 88년도에 총 유류수요중 그 구성비가 5%를 넘어서게 되며, 輕油는 전년도에 이어 최대수요를 갖는 유종으로서 그 구성비가 30.4%에 달하게 될 것이다.

燈油는 가정·상업부문의 가스연료 보급 및 전력사용 확대로 전년대비 2.1%의 낮은 수요증가를 보일 것이며,

제트油의 경우 항공운송 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타 부문의 수요감소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매년 수요가 급증해온 LPG는 도시가스로서 LNG 이용증대에 따라 수요증가가 다소 둔화된 것 하나, 전년대비 17.6%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며, 나프타는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석유화학시설(나프타분해 및 BTX제조시설) 수요가 그 시설용량의 한계로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5.2%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한편, 83년 이후 연평균 9.0%씩 격감해온 B-C油 수요는 발전용 유류대체의 한계, 난방용 유류 수요의 증가, 低油價 지속으로 인한, 산업연료로서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에 따라 88년도부터는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전년대비 7.7%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표-6 참조).

(3) 부문별 수요전망

88년도 부문별 유류수요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산업 및 공공기타부문은 그 구성비가 감소하는 반면, 수송 및 발전부문은 증가하고 가정·상업부문은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전년도 제조업 성장율 16.4%에 비해 크게 낮은 9.5%의 제조업 성장목표와 기초 석유화학업체의 나프타수요 증가 둔화등을 감안시 전년대비 5.9%의 유류수요 증가를 보일 것이며, 發電부문에선 지역난방을 위한 서울火力の 가동증대등으로 그간의 급속한 유류수요 감소추세와는 달리 25.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20%를 넘는 높은 차량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로 인한 수송물량의 증대로 유류수요 증가율이 14.0%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 21.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내국적 선박의 석유사업 기금환급 실시로 인한 해운용 유류수요 급증추세가 종료되는 데에 기인한다.

한편, 가정·상업부문의 유류수요는 도시화 진전에 따른 공동주택 및 빌딩의 증가, 계속된 유가인하로 가정연료의 고급화추세 가속등으로 전년대비 9.4%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일 것이며, 공공기타 부문의 유류수요는 美 군납 유류물량 감소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표-7 참조).

〈表-6〉 88년도 유종별 수요(내수)전망

(단위 : 천배럴)

		1987실적	전년 대비(%)	1988전망	전년 대비(%)
에너지유	휘발유	10,354	21.0	12,503	20.8
	등유	8,158	2.2	8,332	2.1
	경유	63,459	11.1	69,784	10.0
	B-A油	2,386	18.8	2,529	6.0
	B-B油	1,278	16.9	1,423	11.3
	B-C油	59,636	▲8.0	64,207	7.7
	JetA-1	4,166	11.1	4,347	4.3
	Jp-4	4,917	5.2	4,585	▲6.8
	프로판	12,139	28.9	14,670	20.9
	부탄	9,076	11.1	10,282	13.3
小計	175,569	4.8	192,662	9.7	
비에너지유	나프타	31,613	6.5	33,265	5.2
	용제	498	17.2	548	10.0
	아스팔트	2,834	▲2.6	2,933	3.5
	小計	34,945	5.9	36,746	5.2
합계	210,515	4.9	229,408	9.0	

〈表-7〉 88년도 석유제품 부문별 수요전망

(단위 : 천배럴)

	1987		1988		
	물량	구성비(%)	물량	구성비(%)	전년대비(%)
産業	89,796	42.7	95,058	41.4	5.9
수송	66,362	31.5	75,682	33.0	14.0
가정·상업	32,431	15.4	35,494	15.5	9.4
공공기타	14,348	6.8	13,669	6.0	▲4.7
發電	7,578	3.6	9,505	4.1	25.4
計	210,515	100	229,408	100	9.0

2. 수급계획 내역

(1) 개요

총괄적인 88년도의 석유제품 수급계획은 243,216천배럴의 原油를 도입, 이중 231,799천배럴(633천B/D)을 처리하여 제품 228,228천배럴을 생산하고, 부족제품 53,535천배럴을 수입, 총 281,763천배럴의 석유제품을 공급

함으로써 내수수요 229,408천배럴과 국제 벅커링 및 수출수요 48,143천배럴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석유제품 수요에 대한 제품수입 공급비율은 23.3%로서 전년보다 약 0.3% 포인트 증가하는 결과가 되며, 국내 정제시설 가동율은 전년대비 약7% 포인트 증가한 80%(실내수가동율:69%) 수준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88. 10 가동예정인 極東石油 60천B/D 규모 정제시설 증설분을 감안시엔 가동율이 79%가 됨)

한편, 임가공수출 및 잉여高硫黃 B-C油 수출을 주로 하는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12.1%가 증가한 36,409천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88년중 원유 및 제품재고는 90~100일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여 비상시 유류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표-8 참조).

〈表-8〉 88년도 석유수급계획 총괄

(단위 : 천배럴)

		1987	1988	증감(%)		
原油	공급	연 초 재 고	32,138	36,756	14.4	
		수입	내 수	172,624	193,328	12.0
			임 가 공	35,718	42,056	17.7
			비 축	7,821	7,832	0.1
	計	216,163	243,216	12.5		
L O S S	▲581	▲727				
수요	내 수	174,155	188,521	8.2		
	(실 내 수)	(179,434)	(200,085)	(11.5)		
	임 가 공	36,809	43,278	17.6		
	(잔 류)	(5,279)	(11,564)	(119.1)		
計	210,964	231,799	9.9			
연 말 재 고	36,756	47,446	29.1			
製品	공급	내 수 생산	172,527	185,882	7.7	
		(실내수생산)	(177,617)	(197,197)	(11.0)	
		임 가 공 생산	35,492	42,346	19.3	
		(잔 류)	(5,090)	(11,315)	(22.3)	
	수입	48,336	53,535	10.8		
計	256,355	281,763	9.9			
수요	내 수	210,515	229,408	9.0		
	국제 벅커링	10,529	11,734	11.4		
	計	221,044	241,142	9.1		
	수출	32,473	36,409	12.1		
연 말 재 고	10,330	14,542	40.8			

(2) 유종별 수급계획

高 부가가치 유종 또는 소량 수요 유종인 휘발유, 제트油, 아스팔트, B-A油, B-B油, 용제 등은 전량 국내 생산공급할 것이며, 중간유분인 등·경유분에 대하여는 도입 原油 Mix의 적정화를 기하여 생산수율을 증대시키고, 88. 10 가동예정인 極東石油 34천B/D 규모 중질유 분해 시설의 최대 활용 유도를 통해 부족제품 수입을 가급적 감축토록 할 계획이다.

LPG는 별도의 국내생산 공급증대 추진이 적합치 않은 유종이므로 단순 상업증류 과정 생산과 접촉개질시설 및 석유화학 부산물로 생산되는 몰량만을 회수하여 국내 공급하고 부족제품은 장기 안정도입선을 확보·수입토록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할 것이다.

또한, 나프타는 기초 석유화학 원료로서 주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공급 비율을 전년보다 높은 72%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B-C油는 생산수율과 수요구조의 괴리로 정제시

설 가동율을 결정케 하는 유종이므로 도입原油 Mix의 적정화로 인여 고유황 B-C油 발생억제 및 저유황 B-C油 생산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가동율 증대와 함께 석유제품 수입이 가급적 감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9 참조)

(3) 저공해 연료유 공급

지난 81년부터 아황산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공급을 시작한 저유황 연료유는 매년 공급대상 지역 확대로 공급률이 크게 제고되어 전년도에는 저유황 경유(유황 함량 0.4% 이하) 공급율이 77%, 저유황 B-C油(유황함량 1.6% 이하) 공급률은 59% 수준에 달하였다. 그러나 重油 탈황시설이 전혀없는 국내 정제시설 형편상 저유황유 공급 확대를 위한 저유황 原油 위주의 선별 도입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전년도에는 저유황 B-C油 수입물량이 12,596천배럴에 이르러 경·중질유 수급 불균형 심화와 함께 정제시설 가동율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황산가스 오염 우심지역에는 대부분 저유황 유 공급이 이미 되고 있음을 감안, 50천BPSD 규모의 重

〈表-9〉 88년도 유종별 수급 계획

(단위: 천배럴)

		공 급				수 요		수 출	말재고
		초재고	생 산	수 입	합	내 수	국제병커링		
에 너 지 油	휘 발 유	808	12,917	-	13,725	12,503	-	366	856
	등 유	454	9,770	1,475	11,699	8,332	-	2,682	685
	경 유	1,819	65,273	12,789	79,881	69,784	1,007	6,181	2,909
	B - A 油	114	3,125	-	3,239	2,529	542	-	168
	B - B 油	123	1,444	-	1,567	1,423	25	-	119
	B - C 油	3,255	72,885	17,514	93,654	64,207	8,575	15,887	4,985
	Jet A - 1	316	9,601	-	9,917	4,347	1,585	3,660	325
	JP - 4	215	4,621	-	4,836	4,585	-	-	251
	프 로 판	848	4,246	10,424	15,518	14,670	-	-	848
	부 탄	407	8,617	2,100	11,124	10,282	-	-	842
	小 計	8,359	192,499	44,302	245,160	192,662	11,734	28,776	11,988
非 에 너 지 油	나 프 타	1,765	32,079	9,233	43,077	33,265	-	7,534	2,278
	용 제	61	621	-	682	548	-	59	75
	아 스 팔 트	145	3,029	-	3,174	2,933	-	40	201
	小 計	1,971	35,729	9,233	46,933	36,746	-	7,633	2,554
합 계	10,330	228,228	53,535	292,093	229,408	11,734	36,409	14,542	

〈表-10〉 저유황 연료유 공급실적 및 계획

(단위: 천 B/D)

		1981	1985	1987	1988	1991
저 유 황 輕 油	물 량	5.1	92.1	134.3	152.5	242.6
	공급률 (%)	5	64	77	80	100
저 유 황 B-C油	물 량	20.0	93.3	96.6	110.5	181.6
	공급률 (%)	8	49	59	63	85
無 鉛 휘 발 유	물 량	-	-	1.8	5.8	43.3
	공급률 (%)	-	-	5.8 ('87. 7~12)	17	80

油 탈황시설 건설이 완료되는 90년까지는 저유황 B-C油 공급율을 65% 내외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91년 이후 해운용 수요를 제외한 전 B-C油 물량을 저유황 B-C油 로 공급하며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유황함량 1.0% 이하의 저유황 B-C油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올림픽 기간중에는 서울지역에 유황함량 1.0% 이하의 저유황 B-C油를 특별 공급하여(공급기간: 88. 8. 16~10. 15) 보다 쾌적한 대기 환경속에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금년부터 승용차 전차종을 저공해차로 생산하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차량 급증으로 無鉛휘발유 공급율이 급속히 증대되어 전년대비 11.2% 포인트나 증가한 17%에 이를 전망인바, 이러한 휘발유 수요급증 및 무연화에 대응, 정유사별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추진중인 총 30.4천B/D 규모의 접촉 개질시설 신·증설이 완료되는 경우(90년 이전) 91년중 보통휘발유의 전면 무연화

추진시에도 휘발유 수급안정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표-10 참조).

IV. 맺는말

88년도에는 86년 이후 계속되온 低油價가 지속, 발전용 유류 수요의 증가 고율성장에 따른 수송용 유류 급증 및 가정연료의 고급화 추세 등으로 유류수요가 80년대 들어 가장 큰 폭인 9.0%나 증가될 것이며, 수요구조의 輕質化 진전은 발전용 B-C油 수요증가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제시설의 고도화 추진은 활발히 이루어져 금년 10월중 極東石油의 34천B/D 규모 重質油 분해시설이 국내 최초로 완공되어 가동하게 되고, 油公 및 京仁에너지에서 총 40천B/D 규모의 重質油 분해시설과 50천B/D 규모의 重油 탈황시설의 건설을 본격 추진하게 되는 바, 이들 시설의 건설이 원활히 수행되어 90년까지 완료되게 되면 90년대 중반경 예상되는 국제 석유시장 경색시 여건 변동에 탄력 대응이 가능하여 유류수급 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뿐더러 저유황유 안정공급에 의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유류수요의 꾸준한 증가예상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안전가동률(85% 수준)유지를 도모코자 89년중 현 정제능력의 재평가 및 현실화후 92~93년까지 150천B/D 규모의 정제시설 증설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설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